엄동의 사로베츠벌판

가장 외진 곳에서의 혹독한 겨울 체험

방문객은 봄부터 여름까지 많고, 한겨울의 방문객은 적은 편이다. 이 공원에서 스노우슈즈나 크로스컨트리 스키를 즐기는 사람은 아직 많지 않다. 그러나, 혹독한 겨울에도 자연관찰회가 열리고 있다. 소우야 (宗谷) 난류 덕분에 최저기온은 내륙부만큼 내려가지 않는다. 바람이 약하고, 온화한 날에는 사로베츠만의 독특한 겨울의 자연을 볼 수 있다.

설원 트레킹

털발말똥가리 (*Buteo lagopus*)

눈의 벌판를 즐긴다

엄동기 사로베츠의 날씨는 생각보다 혹독하다. 눈보라가 시야를 가리고, 바람에 휩쓸리는 눈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날도 있다. 겨울의 벌판를 즐기는 것은 봄기운이 희미하게 느껴질 무렵, 때때로 찾아오는 온화한 맑은 날이 좋다. 스노우슈즈나 크로스컨트리 스키를 신고 벌판을 걸으면, 눈 위에 남겨진 동물들의 발자국에서 그동물의 활동 모습을 알 수 있다. 겨울을 견뎌내는 식물들의 모습도 볼 수 있다. 겨울을 보내러 온 홍방울새와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크로스컨트리를 즐기다

눈 개인 맑은 리시리산 (利尻山) 의 조망

눈 개인 맑은 리시리산은 여름과는 또 다른 장엄한 모습이다. 사로베츠의 해안선을 지나는 도로에서는 핫카이 (抜海) 하마유우치 (浜勇知), 와카사카나이 (稚咲内) 외 어디에서라도 리시리섬 (利尻島) 섬이 보인다. 핫카이어항에서는 점박이물범이 보이는 날이 있다. 또한, 사로베츠벌판에도 곳곳에 전망 포인트가 있다. 마음에 드는 포인트를 찾아 가보는 것은 어떨까?

홍방울새 (*Carduelis flammea*)

눈 내린 후 활짝 갠 사로베츠벌판